

광주 올 하반기 '쓰레기 대란' 온다



2일 찾아간 장성군 서삼면 용흥리 복합물류 센터 아적장에 광주 SRF제조시설에서 만든 '폐기를 고�형 연료'가 파란색 덮개가 씌워진 채 1년 6개월 이상 장기 보관 중이다. 이 곳에 보관 중인 6만 t의 폐기를 고�형연료는 나주열병합발전소로 납품돼 연료로 쓰일 예정이었으나, 혁신도시 주민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발전소가 멈춰 오갈데 없는 신세가 됐다.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에 광주 쓰레기 처리 한계 직면 처리 비용 5배 치솟아 민간 업체 '수거 거부 선언' 가능성도

'광주 쓰레기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광주지역 쓰레기로 만들어진 SRF(폐기물 고�형 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던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3면> 광주 SRF 생산 시설을 통해 쓰레기를 처리하던 기존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민간 시설에서 소각처리되는 쓰레기보다 가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양이 웃도는 것이 쓰레기 대란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SRF 시설로 저가에 남겨지던 쓰레기가 민간 소각시설로 넘겨져 처리되다 보니, 업체 비용 부담도 이전보다 5배 가량 치솟은 점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쓰레기 처

리업체 입장에서는 처리 비용 폭증으로 1년여간 경영난에 시달려온 업체들이 수거 거부하는 초유의 선언을 할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쓰레기는 지난 2017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것을 제외하고, 모두 광주 양곡동 SRF제조시설로 보내졌다. 가연성 쓰레기는 이곳에서 고�형연료로 재탄생했고, 2018년 1월부터는 나주열병합발전소로 공급될 예정이었다.

공짜로 남기는 게 아니라 쓰레기로 만든 고�형연료 1t당 1만8000원에, 전량(일 300t) 판매하기로 돼 있었다. 광주 SRF 시

설 사업자인 청정빛고을(주)과 나주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맺은 계약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나주열병합발전소가 2017년 말 시험 가동 과정에서 주민 반발에 부딪혀 정상 가동이 무기한 연기됐고, 불똥은 곧 광주로 튀어 광주 SRF 시설도 가동이 중단됐다. 광주 SRF 시설에서 고�형연료를 만들어내도 보낼 데가 없기 때문이다.

나주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광주에서 생산된 1년치 고�형연료 6만톤을 인수하지 못하고 장성의 한 물류창고 아적장에 임시로 맡겨두고 있다.

현재 1년 이상 방치된 고�형연료는 광주-나주-장성 지자체와 사업자 등 다자간 갈등의 뇌관으로 언제든 비화될 태세다.

다 큰 문제는 나주열병합발전소 무기한 가동 연기로 광주 쓰레기 대란을 몰고 올 것이란 점이다.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 연기→광주 SRF 시설 가동 중단(2018년 1월)→양곡동 공역 매립장 반입량 폭증(매립장 사용 연한 단축)→광역매립장 가연성 폐기물 반입 전면 중단(2019년 5월)→가연성 폐기물 처리량 폭증과 처리비용 급상승→폐기물 처리 곤란 사태로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가연성 폐기물 가운데 오염물이 잔존 물어 재활용되지 못하는 폐비닐·플라스틱 등 '잔재물'이 특히 쏠린다.

광주시와 업체에 따르면 가연성 재활용 잔재물은 광주 SRF 시설과 매립장 모두에서 반입 불가되면서 처리 비용이 이전보다 무려 5배(당 3만8000원~20만원) 이상 치솟았다.

광주시와 자치구, 업체는 올 하반기를 위기로 보고 있다. 처리 비용 폭증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수거업체들이 '수거 거부 선언'을 할 것이라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는데다, 쓰레기 발생량이 민간 소각시설로 넘겨져 처리되는 쓰레기 양을 웃돌면서 '올 하반기에는 처리 한계 상황에 맞닥뜨릴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다.

이달부터 일부 쓰레기 수거업체가 요금 인상을 개별 공동주택에 통보하면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는 것도 하반기 쓰레기 대란 요인 가운데 하나다. 자치단체와 업체 일각에서는 올 봄 광주 동구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불법 매립 사건처럼 처리 비용 증가 부담을 이기지 못한 업체의 추가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광주전남 출신·소속 팀 국가대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5명 출전



경영 백수연·김민섭 선수
다이빙 권하림 선수
수구 추민중·최진재 선수

대표로 출전했다. 그는 최근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 여일반 평영 200m, 100m 결승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김민섭(여수 문수중 3년)은 역시 중학생으로 세계대회에 출전한 박태환의 계보를 이을 선수로 평가된다. 최근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남자부 접영 200m에 출전해 쟁쟁한 실업 선배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 파란의 주인공이 됐다.

권하림(광주시체육회)은 지난해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같은 해 전국체전 다이빙 여자일반부 싱크로다이빙 3m, 플랫폼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땀다. 수구에 출전하는 추민중, 최진재(이상 전남도체육회)도 지난해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였다. 한편, 정희진 전남체육회 생활체육팀장의 아들인 정병영(골키퍼·서울) 선수도 수구 국가대표팀에 포함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법제처 "한전, 한전공대 출연 예타 면제"

이사회 결정하면 설립 착수

라는 점을 들었다.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공공기관 신규투자 및 출자사업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한전공대 설립의 경우 수익을 전제로 하지 않은 비영리 출연사업이므로 예타 대상이 아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전, 전남도 등은 한전의 한전공대 출연이 기재부 예타에서 제외된만큼 6월 초로 예정된 '한전공대 법정주 지인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교육부, 산업자원통상부, 과학기술통신부 등 다른 정부부처의 관련 현안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및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일반법 제정 또는 관련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한전, 전남도 등은 한전의 한전공대 출연이 기재부 예타에서 제외된만큼 6월 초로 예정된 '한전공대 법정주 지인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교육부, 산업자원통상부, 과학기술통신부 등 다른 정부부처의 관련 현안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및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일반법 제정 또는 관련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그 이유로 법제처는 한전공대 출연이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자금 투입이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생활 속 '막아 용어' 심각하다 ▶6면
위라벨 - 감성충전 미술관 여행 ▶18면
챌스 준우승 손흥민의 눈물 ▶20면

대한민국대표종합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대표전화 1577-3000
광주지사 1688-1104

대한민국 크루즈 선도 기업 ▶대한민국 크루즈 승객 1위 기업
▶국내유일 10년 연속 크루즈 전세선 운항

2017 '아시아 최고 크루즈 여행사'상 최초 수상!

Costa
11만 4천톤 · 전장: 290m · 전폭: 35m
수용인원: 3,780명 · 승무원: 1,100명

오늘은 유럽, 내일은 아시아
매일매일 새로운 4개국의 아침을 만나보세요

한/중/일/러 4개국의 아침을 깨우다

무료 셔틀버스 제공!
광주-인천/속초/부산 왕복수송

10/8
인천항 출항

인천항·상해·나가사키
▶블라디보스톡·속초항

한/중/일/러 특별 전세선 8일
내 측 1,980,000원 ~ 발코니 2,680,000원 ~
오선부 2,280,000원 ~ 스위트 3,480,000원 ~

10/15
속초항 출항

속초항·블라디보스톡
▶사카이미나토·부산항

한/러/일 특별 전세선 6일
내 측 1,780,000원 ~ 발코니 2,480,000원 ~
오선부 2,080,000원 ~ 스위트 3,280,000원 ~

조기예약 이벤트

40만원 할인 + 선실 우선배정
[6월 14일까지 예약 및 완납자에 한함]

단체 예약
8명 이상 3만 원, 14명 이상 5만 원, 20명 이상 10만 원 할인

3/4인실 할인
3/4인실 이용시 3/4인실 가격 적용

성인 80만원 / 소아 무료!

10/11
2,990,000원부터

서부 지중해 (남프랑스/스페인/이태리) ▶6/21~ 매주 금 출발
동부 지중해 (그리스/크로아티아/이태리) ▶6/28~ 매주 금 출발
유럽 NO.1 코스타 크루즈 탑승, 일라노 추가 관광 + 임금호텔 숙박

2018 인기크루즈 BEST 3

5/6일
선박속 20만 원 한일 한/일 크루즈
1,090,000원부터 +US\$77.5 선실관광 포함
▶7/3, 8, 12, 26~ 매주 월, 수, 금요일 출발
▶새롭게 단장한 코스타 네오로만티카호 탑승 ●부산 출/도착

6/10일
베스트셀러 알래스카 정통 빙하크루즈
3,700,800원부터 +US\$201.5 선실관광 포함
6/7, 14 이후 매일출항, 매주 금요일 출발
●루비 프린세스호 ●프리미엄 크루즈 승선 및 알래스카산 선상식

1명차 **특별공연 / 가수 김성환, 전영록**

2명차 **특별공연 / 가수 홍서범 & 조갑경**

상해 나가사키 블라디보스톡 사카이미나토

가견포함내역 크루즈 선실료 및 항구세,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 **가이드/가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일/지세한 사항 및 일정표는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인전경비포함] ●여행유류 / ●여행자세 / ●항공권 / ●여행금지 4대국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c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선적경비(관공) 있음/없음 상용에 따라 선적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적경비는 선적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적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적관광 미 선적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지역의 경우 비지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메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부득이한 사정 하에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여행경비 인공은 고객별 전담팀에 가능합니다. ●종로구청: 일일여행금 제47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8 롯데관광개발주) ●일일여행금 영리보증보험 10억원 가입 ●기타여행 실시에 따른 보증보험 50억원 가입 ●여행관리센터: 1588-8882 ●여행유류: 부산항/속초항 ●최소출발 10명 ●크루즈 221일 사무실/부속실 제외 ●교통편: 항공, 버스, 크루즈선상에서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열차, 입국권, 숙박권 등은 여행일정에 따라 취소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